

# 李白과 杜甫의 蜀道行 기행산수시 감상법\*

— ‘아이팩스-영화’와 ‘로드무비’를 통하여

洪銀彬\*\*

< 목 차 >

1. 서론
2. 본론
  - 2.1. ‘아이팩스-영화’로 본 李白의 <蜀道難>
  - 2.2. ‘로드무비’로 본 杜甫의 ‘入蜀紀行詩’
3. 결론

## 1. 서론

주지하다시피 문학은 情景交融을 최고의 예술심미 경계로 삼는다. 이는 시에서 意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王國維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학의 직분은 안으로는 자신을 표현하고 밖으로는 남을 감동시키는 것이니, 意와 境 두 가지일 따름이다. 최상은 意와 境이 혼용하는 것이고, 다음은 境이 뛰어나든지 意가 뛰어나든지 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결여되면 문학이라 말할 수 없다.<sup>1)</sup>

이는 문학의 본질적 요소인 意와 境이 창출한 미적 경계를 말한 것으로, 그

의 이론체계에 의해 意와 境은 각각 情과 景의 개념으로 대응된다. 따라서 문학의 본질은 情과 景이라 할 수 있으니, 情景이 잘 구현된 작품으로 중국문학사에서 山水詩를 꼽는다. 산수시가 先景後情의 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칫 기계적 도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산수시에서의 情景交融의 다양한 양상을 생동적 유기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감상법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 편의 山水詩는 한 폭의 山水畫와도 같다. 그림 같은 이미지가 여행자의 시선을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움직이는 화면, 즉 영화가 된다. 필자는 이 점에 착안하여 시 작품이 창출하는 意境으로부터 연상되는 영화장르를 통해 감상할 것이다. 이를 감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情景交融의 다양한 전개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분석적 해체적 이해가 아닌 종합적 총체적 감상으로 설득력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시는 파편적 이미지의 연속으로 논리가 비약되거나 함축되는데 반해, 이야기는 전후 맥락 속에 ‘인물’과 ‘사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sup>2)</sup> 시를 영화의 이야기 구조로 전개한다면, ‘情’과 ‘景’이 엮여가는 시상의 흐름이 ‘인과관계’에 의해 뚜렷이 드러나 감상자로 하여금 설득력을 갖게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시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는 ‘情’과 ‘景’이다. 산수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아의 ‘내면’과 ‘풍경’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이야기 구조로 전개되면, 사람의 ‘본성’과 행동이 일으키는 ‘사건’이 된다. 산수시에서의 ‘사건’이란 인물이 아닌 ‘풍경’ 자체가 전개의 주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풍경’의 전개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이야기 구조의 큰 흐름을 따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첫머리에 배경과 상황이 제시되고, 풍경이 점점 험준하게 전개되어, 위기국면을 맞이하다가, 최고조에 이르러 갈등의 해

\* 이 논문은 2009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高麗大 中文科 博士修了.

1) 《人間詞乙稿序》(周錫山 編校, 《王國維文學美學論著集》, 山西: 北岳文藝出版社, 1987), 397쪽: 文學之事, 其內足以據己, 而外足以感人者, 意與境二者而已. 上焉者意與境渾, 其次或以境勝, 或以意勝. 苟缺一, 不足以言文學.

2) 실제로 이야기 구조를 띠는 소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대적인 의미의 소설은 사람의 ‘본성’과 ‘행동’이 서로 긴밀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확인시키기 시작하면서 성립되었다. 따라서 소설은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사람의 ‘본성’에 근거하여 이야기한다.” (李商變 著, 《文學批評用語辭典》, 民音社, 1981, 149쪽)

소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경물'에 투영된 주인공의 '내면심리'가 자연스럽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이야기 구조가 원래 '행동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람의 본성'간의 긴밀한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발전시킨다는 데 있다. 따라서 영화를 통한 감상은 '풍경의 흐름'과 '내면의 흐름'이 어떻게 조응하며 발전해 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감상하고자 하는 작품은 李白의 《蜀道難》과 杜甫의 入蜀紀行詩 12수이다. 이들은 높은 意境을 만들어낸 詩史의 양대 산맥으로서 각각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라는 뚜렷한 예술적 성취를 이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예술적 경계를 이룩한 두 거장의 작품을 통하여 情景交融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이백은 그 길을 상상의 세계에서 시로 펼쳐내었고, 두보는 이백의 시를 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시를 남겼을 것이니, 같은 여정을 그리고 있는 두 거장의 눈에 비친 경물이 나름의 내면세계와 조응하며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백의 <촉도난>이 창출하는 意境은 '아이맥스 영화'가 추구하는 영상 효과와 일맥상통하므로, 영화의 대형 스크린에 영사되는 '이미지 보여주기'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할 것이다. 반면, 두보의 '입촉기행시' 12수가 창출하는 意境은 '로드무비'가 추구하는 영화 효과와 일맥상통하므로, 풍경의 흐름이 이야기 구조로 전개되는 것에 걸맞게 '이야기 보여주기'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영화를 통한 감상은 창작배경이나 작가의 기질과 성향에 따른 작품의 영향관계 등은 표면적으로 배제되고, 철저하게 시 작품 자체를 위주로 감상하였을 때 전해 받을 수 있는 美感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 과정에서 화면에 펼쳐지는 '풍경'과 '내면'의 조응관계, 즉 情景交融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본론

### 2.1. '아이맥스-영화'로 본 李白의 <蜀道難>

먼저 '아이맥스-영화'의 특징<sup>3)</sup>부터 알아야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감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이맥스 영화는 일반영화보다 선명한 화질과 화면 몰입이 용이한 대형 스크린, 그리고 디지털 입체 음향 시설을 갖춘 물리적 조건을 전제한다. 그리고 제작 시에 하나의 장면을 두 대의 서로 다른 카메라 시점으로 영상화함으로써 인간의 兩眼으로 사물을 지각하는 특성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관람에 필요한 편광 안경은 왼쪽 눈은 왼쪽 카메라가 찍은 이미지만을, 오른쪽 눈은 오른쪽 카메라가 찍은 이미지만을 볼 수 있게 제작된 것으로, 그 효과는 입체감이 극대화되어 실제로 현장을 경험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관객을 외부와 분리시켜 완전한 고립의 상태로 만듦으로써 오로지 '이미지와 나'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맥스 영화가 탄생되기 위해 또 하나 거치는 과정이 있다. 그것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이미지를 세련되게 혹은 촌스럽게 혹은 없는 것을 만들어 넣기도 하고 혹은 색감을 바꾸기도 하면서, 실사 이미지를 재료로 또 다른 디지털 이미지를 만든다. 이러한 이미지 조작은 그 봉합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사실적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렇게 디지털 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이맥스 영화로, 李白의 <蜀道難>을 감상한다면 한층 더 입체적이고 생동적인 촉도의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李白이 42세(742) 무렵 長安에서 그린 '蜀道'의 그림을 펼쳐 본다.

여기는 長安. 蜀으로 가려고 한다. 촉은 장안으로부터 남서쪽으로 1000km

3) 이수진, <감각의 시물레이션: 디지털 3D 애니메이션 베어울프와 관객>,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08 참고.

정도 지점에 위치한 四川 분지이다.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굽이굽이 휘감아 도는 강과 첩첩산중을 몇 고비나 넘어야 한다. 설상가상 지세도 험하고 가파르다. 이백은 四川省 綿州 彰明縣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25세 때 蜀을 떠나 기까지 줄곧 이곳에서 文才와 검술을 익히며 蜀을 두루 유람한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그 지형이나 지세가 훤히 눈에 들어온다.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진다. 고향 가는 길을 떠올리자마자 축도의 이미지가 공포심 섞인 감탄사로 터져 나온다. ‘으호호!’<sup>4)</sup> 연이어 그 공포심의 정체를 보여준다. 하늘 오르기보다 더 어려운 蜀으로 가는 길, 너무 높고 험난하여 아찔하기만 하다.

01 噫吁戲,	으호호
02 危乎高哉!	아찔해라! 높기도 해라!
03 蜀道之難,	축으로 가는 길의 험난함은
04 難於上青天.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어렵구나.

화면이 시작되자마자 아무런 이미지도 보여주지 않은 채, 안내자의 탄성이 공포감과 위기감으로 몰아넣는다. 마치 영화 보기 전 편광 안경을 쓰면 외부의 요소들은 사라지고 완전 고립된 상태에서 대상과 나만 남는 것처럼, ‘蜀道之難, 難於上青天’이라는 주제를 앞길을 가로막는 벽처럼 도입부, 중간부, 대단원에서 세 번 나타나 감상자를 고립시켜버린다. 그 고립감은 공포감만 남기고 다른 감각들을 일시에 마비시킨다.

공포에 휩싸인 채 대상으로의 몰입이 일어나면, 蜀나라를 세운 태고의 신화와 전설<sup>5)</sup>로 시간이 열린다. 蜀땅과 秦땅 사이는 험난하게 둘러쳐진 천연 요새 같은 지형 때문에 건국 이래 한 번도 왕래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험난한 지형임을 시간상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시간을 길게 확장시켜 놓았다.

05 蠶叢及魚鳧,	잠충과 어부가
06 開國何茫然.	촉나라 세운 때 아득히 언제런가.
07 爾來四萬八千歲,	그 후로 사만 팔천 년 동안
08 不與秦塞通人煙.	진나라 변경과 통하는 인가도 없구나.

그런 다음, 長安 서쪽의 太白山<sup>6)</sup>에서 四川省 남서쪽의 蛾眉山<sup>7)</sup>까지 단숨에 가로질러 공간을 넓게 확장시켜 놓는다. 하지만 그 사이는 길을 뚫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전설로 남아 있고,<sup>8)</sup> 보이는 건 얼키설키 이어진 잔도들 뿐 위험성이 더 부각된다.

09 西當太白有鳥道,	서쪽 태백산의 새들 날아다니는 길만이
10 可以橫絕峨眉巔.	아미산 정상까지 가로지를 수 있구나.
11 地崩山摧壯士死,	땅 꺼지고 산 무너져 장병들 죽고
12 然後天梯石棧相鉤連.	그 후 위태로운 사다리와 절벽 잔도만이 갈고리처럼 얽혀있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확장된 대형 화면에서 이제 경치들은 입체적으로 움직이며 지나간다.

13 上有六龍回日之高標,	위는 육룡의 해수레도 돌아선 천길 벼랑 고표산
14 下有衝波逆折之回川.	아래는 거센 파도 굽이치는 소용돌이 물보라.
15 黃鶴之飛尚不得過,	신선이 탄 황학마저도 날아 넘지 못했고
16 猿猱欲度愁攀援.	원숭이조차도 건너자니 부여잡고 매달릴 걱정.

화면은 상하로 빠르게 움직이며 공간의 깊이감을 더한다. 하늘 끝 高標山<sup>9)</sup>

4) ‘噫吁戲(yīxūxī)’는 蜀의 방언으로 위험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내는 驚異의 탄성.  
5) 揚雄, 《蜀王本紀》(嚴一萍 選輯, 百部叢書集成卷14, 藝文印書館印行), 1쪽: “蜀之先稱王子有蠶叢, 柘濩, 魚鳧, 開明, 是時, 人萌椎髻左衽, 不曉文字, 未有禮樂, 從開明已上至蠶叢, 積三萬四千歲.”

6) 太白山은 陝西省 남쪽 20km지점으로 漢江과 渭水 사이에 있으며, 秦嶺山脈의 주봉으로 해발 3,767m의 關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7) 蛾眉山은 四川省 蛾眉縣 서남쪽 7km 지점으로 해발 3099m이다.  
8) 揚雄, 위의 책, 3, 5쪽: “天爲蜀王生五丁力士, 能徙蜀山. ……於是秦王知蜀王好色, 乃獻美女五人於蜀王, 蜀王愛之遣五丁迎女, 還至梓潼見一大蛇入山穴中, 一丁引其尾不出, 五丁共引蛇, 山乃崩壓五丁, 五丁踏地大呼秦王五女, 及迎送者皆上山化爲石.”  
9) 高標山은 四川省 樂山縣 城內 서쪽에 위치한다. 蜀에서 표적이 될 만큼 높아 해수레마저도 넘을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묘사되므로 그렇게 명칭하였다.

까지 높이 치솟았다가, 바로 수직 낙하하여 땅 밑 절벽에 부딪쳐 소용돌이치는 물보라를 깊숙이 비춘다. 어찌나 물길이 거세고 높은지 원숭이도 세찬 파도에 휩쓸릴까 걱정이다. 이와 對를 맞춰 仙人이 타고 신선세계로 날아갔다는 전설상의 黃鶴을 등장시키고 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원적인 험준함을 부각시킨다.

그 다음에는 공간의 수평이동이 일어나서, 蛾眉山까지 달렸던 화면은 다시 甘肅省 徽縣의 남쪽의 靑泥峯<sup>10)</sup>으로 종횡무진 옮겨온다. 이제 長安을 벗어나 太白山도 넘고 四川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와있다. 이곳의 험한 지형이 상세한 묘사와 비유로 사실감을 더한다. 구불구불 울퉁불퉁 높은 바위산을 지나면서 별들이 잡힐 듯하자 기막힘에 깜짝 놀라 주저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는다.

- |             |                              |
|-------------|------------------------------|
| 17 靑泥何盤盤,   | 청니봉은 어찌나 구불구불 도는지            |
| 18 百步九折縈巖巒, | 백 걸음에 아홉 굽이나 꺾어 도는 바위산.      |
| 19 捫參歷井仰脅息, | 삼성별 만지고 정성별 지나자 숨이 턱 차올라     |
| 20 以手撫膺坐長嘆, | 손으로 가슴 쓸어내며 주저앉아 길게 몰아쉬는 한숨. |

이쯤에서 여정을 재정비할 때다. 아직 蜀땅을 들어서지 않았다. 앞으로의 고생길은 이에 비할 바 못 되니 지금이라도 되돌아감만 못하다고 경고하듯 여행 의지를 확인하는 듯하다.

- |             |                        |
|-------------|------------------------|
| 21 問君西遊何時還, | 문노니 서쪽으로 떠나면 언제 돌아올런지  |
| 22 畏途巖岩不可攀, | 무섭고 가파른 벼랑길 오를 수 없을 터. |

하지만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온 것 같다. 험난했던 길을 종횡무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여정의 한 가운데 서있어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영화가 돌아간 분량과 시간도 꼭 2분의 1되는 지점이다.<sup>11)</sup> 시간도 한 밤, 장

10) 靑泥峯은 甘肅省 徽縣의 남쪽, 陝西省 略陽縣의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甘肅에서 四川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다.

11) <蜀道難>은 악부체로 총 49행인데, 한가운데인 제25행을 기준으로 앞뒤로 4행씩 제21

소는 인적 없는 깊은 숲, 여기서 마주하는 고목나무의 슬피 우는 새와 자규새의 울음소리는 실제 보고 들은 것일 수도 있고, 내면의 차오른 수심을 드러내 주는 시적 장치일 수도 있다. 자규새(두견새)가 촉지방에 특히 많고 그 울음소리가 애절하여 나그네의 애간장을 끊는다고 하여, 영화에서 사실감을 얻기 위해 이미지를 그려 넣어 조작하듯이 말이다.

- |             |                            |
|-------------|----------------------------|
| 23 但見悲鳥號古木, | 보이는 건 다만 고목에서 목놓아 슬피 우는 새  |
| 24 雄飛雌從繞林間, | 암수 한 쌍 짝하여 수풀 사이를 어지러이 나네. |
| 25 又聞子規啼夜月, | 또 들리는 건 달밤의 두견새 울음소리       |
| 26 愁空山,     | 텅 빈 산에 수심 차오르네.            |

이렇게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 있으니, 여행 시작할 때 공포심을 조장했던 탄성이 상기된다. 여기까지 험난함을 몸소 겪었기에 “蜀道之難, 難於上青天”이란 말만 들어도 이제는 공포감이 실감나서 얼굴이 창백해진다. 앞에 더 큰 벽이 가로막힌 듯하지만, 한가운데서 완전 고립되어 빠져 나올 수도 없다.

- |             |                         |
|-------------|-------------------------|
| 27 蜀道之難,    | 촉으로 가는 길의 험난함은          |
| 28 難於上青天,   |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어려우니        |
| 29 使人聽此凋朱顏, | 말만 들어도 창백해지는 핏기 가신 얼굴빛. |

힘들지만 여정은 계속되고, 후반부로 치달으면서 험난함의 정도는 강도를 더한다. 첩첩이 이어진 산들을 계속 넘는다. 四川省으로 들어서서 蜀道로 본격 진입하는 嘉陵江 길을 따라 험난한 지세를 빠르게 훑어 내려간다.<sup>12)</sup> 대형 화

행부터 제29행까지의 단락이 하나의 의미군을 이룬다. 이는 시의 한가운데가 여행의 중반부가 되고, 영화로 치면 상영 시간의 한가운데를 차지한다. 숨가쁘게 달려오며 험난함의 강도를 더해오던 여정은 한가운데에 이르러 한밤중 깊은 숲에서 내면의 소리와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앞길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난다.

12) 이 부분은 바로 앞 대목이 靑泥嶺이고 다음 대목이 劍閣이므로, 그 중간 경로를 빠르게 훑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간은 靑泥嶺의 남동쪽 가까이 있는 略陽縣부터 시작되는 嘉陵江의 棧道를 따르는 여정이 된다. 이는 杜甫 入蜀紀行詩의 제5수<飛仙閣>부터 제10수<劍閣>에 이르는 노선과 일치한다.

면 가득 연이은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하늘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카메라 앵글이 후진하면서 천 길 벼랑과 함께 폭포수와 세찬 물살을 화면에 담는다. 입체 음향에서는 고막을 찢을 듯한 폭포 소리와 깊이를 알 수 없는 킁킁한 벼랑골짜기로 떨어지는 바위의 우뢰소리가 뒤섞여 터져 나온다. 게다가 깎아지른 절벽에 험상궂은 형상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소나무는 마음마저 섬뜩하게 한다. 모든 촉각을 자극하는 생동적인 화면으로 인해 실제로 현장에 서서 험준한 자연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는 듯하다.

- 30 連峰去天不盈尺, 연이은 봉우리들은 하늘까지 거리가 한 자도 안 되고  
31 枯松倒挂倚絕壁. 마른 소나무는 거꾸로 매달려 벼랑 끝에 몸 붙이고 있네.  
32 飛湍瀑流爭喧豗, 물살과 폭포수는 튀어오르고 퍼부으며 요란한 다투고  
33 砅崖轉石萬壑雷. 벼랑폭포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은 온 골짜기에 천둥치네.

험난한 여정에 놀라 정신없이 달려와 보니 어느새 벌써 劍閣<sup>13)</sup>에 이르렀다.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뚫고 여기까지 당도한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화면 속에서 劍閣門이 열리며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 34 其險也若此, 험하기가 이와 같거늘  
35 嗟爾遠道之人胡爲乎來哉! 아아, 그대 먼 길 온 손은 어이하다 예까지 왔단 말인가!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험악한 모습의 劍閣이 이내 정체를 드러낸다. 삐죽 솟아 칼날 같은 모습이 성곽으로 오버랩 되듯, 그 천연 요새에 파수병 하나가 관문을 지키고 서있다.<sup>14)</sup> 만 사람도 범접 못할 만큼 위협적인 형세 덕에 간사한 피를 내어 사람들을 마구 헤치니, 그 끔찍한 화면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 36 劍閣崢嶸而崔嵬, 검각은 삐죽삐죽 가파르게 높이 솟아  
37 一夫當關, 한 명이 관문을 막으면  
38 萬夫莫開. 만 명도 뚫지 못하리.  
39 所守或匪親, 파수꾼이 친한 이 아니라면  
40 化爲狼與豺. 이리와 승냥이로 변하게 되리.  
41 朝避猛虎, 아침엔 사나운 호랑이 피하고  
42 夕避長蛇, 저녁엔 무서운 뱀을 피하며  
43 磨牙吮血, 어금니 갈아 피 빨아먹으며  
44 殺人如麻. 사람 죽이기를 삼베 자르듯 한다.

그동안의 험난했던 여정은 劍閣 앞에서 무색해진다. 이곳을 넘으면 낙원의 成都를 볼 수 있건만 산 채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진 구조이다. 목숨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 45 錦城雖雲樂, 금관성이 비록 좋다고 하나  
46 不如早還家. 서둘러 집에 돌아감만 못하리.

대단원에 이르러 다시 주제부가 제시된다. 이 주제부는 전체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세 차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蜀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의 강도는 달랐다. 도입부는 공포감을 유발하여 고립된 감각을 조성했었고, 중간부는 공포의 실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였으며, 대단원은 목숨을 위협 받을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해주는 것이어서, 이곳으로의 여행을 미연에 차단해버리는 효과가 있다.

- 47 蜀道之難, 축으로 가는 길의 험난함은  
48 難於上青天,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어려우니  
49 側身西望長咨嗟. 몸을 기울여 서쪽 바라보기만 해도 긴 탄식 나온다.

정신을 차려보니 실제 여행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화면을 따라 갔다 온 것이다. 앉아있는 곳은 다시 長安. 하마터면 죽을 뻔 했던 것을 생각하니

13) 劍閣은 四川省 劍閣縣의 북쪽 25km 지점인 劍門山에 있으며 예부터 蜀道の 요충지였다. 양쪽에 칼날 같은 산이 우뚝 솟아 있어서 천연적인 요새이다.

14) 左思, <蜀道賦>(王琦, 《李太白全集》, 中華書局, 2008), 165쪽: “一夫守隘, 萬夫莫向.”, 張載, <劍閣銘>(王琦, 같은 책), 165쪽: “一人荷戟, 萬夫趨赴. 形勝之地, 匪親勿居.”

서쪽으로 고개만 돌려도 아찔함에 깊은 한숨과 탄식만 나올 뿐이다.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蜀道難’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니 마치 대형 스크린에서 입체감, 현장감, 사실감, 박진감 등을 느끼며 한 편의 아이맥스 영화를 본 듯하다. 그 옛날 李白이 長安에서 賀知章에게 보여줬을 때 무릎을 치며 감탄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백의 축도난! 그야말로 거대한 화면에서 펼쳐졌던 장쾌한 그림이었다. 이백을 따라 종횡무진 단숨에 1000km이상의 거리를 여행했던 것은 이백의 상상 이 펼쳐낸 세계요, 그림이요, 영화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그림은 이백의 어릴 적 체험이 바탕이 된 곳으로 사진의 실사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기에 허구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이백의 豪放한 정신과 飄逸한 예술세계가 빚어낸 山水詩의 걸작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똑같은 여정을 실제 길을 따라 천천히 갔던 杜甫의 여정은 어떤 그림으로 펼쳐질지 궁금하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 가쁘게 달려왔던 李白의 여정을 杜甫를 통해 숨을 고르고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杜甫의 入蜀紀行詩 12수를 따라가 본다.

## 2.2. ‘로드무비’로 본 杜甫의 ‘入蜀紀行詩’

본고는 같은 여정의 같은 경물대상이 두 시인의 서로 다른 정감에 의해 각각 다른 예술풍격으로 승화되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杜甫와 李白의 여행 노선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보의 入蜀紀行詩는 同谷을 출발점으로 하는 기행시 12수가 대상이 된다.<sup>15)</sup> 그런데 杜甫가 첫 수에 부기해둔 ‘自隴右赴成都紀行’<sup>16)</sup>을 제목으로 삼는다면, 12수의 각 시편은 총 222행이

라는 한 편의 거대 장편 기행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본고는 이에 근거하여 “同谷에서 成都로 가는 여정의 기록”을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 재구성하여 로드무비의 각도에서 감상해볼 것이다. 同谷에서 成都까지는 500km정도 되는 거리로 759년 12월 1일에 출발하여 한 달에 걸쳐 이동해간 긴 여정인데, 두보의 시선이 포착한 풍경들도 계속하여 움직이며 지나간다. 이러한 역동적 이미지들을 박제화 된 액자 속 그림에서 꺼내어 영화의 틀로 감상한다면, 풍경 자체의 전개가 ‘이야기 전개 구조로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것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면의 흐름’도 함께 자연스럽게 포착될 것이므로, 로드무비를 통한 두보 기행시의 감상은 경물에 따라 변화하는 두보의 내면을 소리 없이 들여다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로드무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sup>17)</sup> 로드무비란 길이 전제가 되어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소재가 된 영화이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탐색하고 사유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어떤 이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또 어떤 이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쫓기어 길 위를 달려간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혹은 자기 비하를 위한 여정이 되지만 해결은 모호하게 남는 것이 로드무비의 공식이다. 요컨대, 로드무비는 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과 주인공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면의 사색’이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시에서 意境을 이루는 ‘情’과 ‘景’의 요소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풍경의 전개와 두보 내면의 섬세한 변화 양상이 창출하는 시의 意境을 현대적 감수성으로 체감해 본다면, 고전이 현대에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입축기행시의 시상 전개의 주축은 풍경과 나그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나그네의 내면에서 걸러진 풍경의 흐름을 로드무비의 ‘이야기 보여주기’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15) 甘肅省 同谷의 동쪽 약40km에 靑泥峯이 있어 비교적 가깝다. 李白은 長安으로부터 서쪽의 太白山을 넘어 정식으로 靑泥峯에서 남하하여 嘉陵江을 타고 蜀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두 사람의 蜀道行 노선은 여기서 만난다고 볼 수 있다.

16) 仇兆鰲, 《杜詩詳註》(北京: 中華書局, 2007), 705쪽.

17) 주진숙, <세상 밖으로: 로드무비의 새로운 지평>, 《영화연구》, 한국영화학회, 1995 참고.

## S#1. 발단: 동곡을 출발하다(&lt;發同谷縣&gt;)

여정의 출발부터 同谷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운명이 제시된다. 주인공은 聖賢과는 대조적인 일개 촌로의 비극적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賢有不黔突. 목자 같은 현인도 굴뚝을 검게 지피지 않았고,  
聖有不煖席. 공자 같은 성인도 자리를 덥힌 적 없었는데.  
況我飢愚人. 하물며 나 같은 굶주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焉能尙安宅? 어찌 집에서 편안함을 바랄 수 있겠는가. (중략)

곧이어 원치 않던 상황에 쫓기어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sup>18)</sup> 앞으로 멀고 험난한 여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奈何迫物累. 어이할까 세상사의 짐에 내몰리어,  
一歲四行役! 일 년에 네 번이나 옮기게 되었다.  
忡忡去絕境. 근심스런 맘으로 외딴곳을 떠나,  
杳杳更遠適. 아스라이 더 먼 곳으로 간다. (중략)

게다가 더 슬픈 것은 궁핍하고 힘이 없다는 처량한 신세이다. 현실의 우울함으로 시작된 유랑에서, 운명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더라도 한 듯 급기야 미물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기비하의 감정이 시상을 지배한다.

交情無舊深. 우정이 오래되어야 깊은 것 아니구나,  
窮老多慘感. 곤궁하고 노쇠하니 슬픔 더 밀려온다. (중략)  
去住與願違. 떠나고 머무름 내 바람과 어긋나,  
仰慚林間翮. 수풀의 새들 우러러 봄에 부끄럽다.

이에 비극적 운명을 떨치고 새로운 낙토 成都로 희망을 품고 떠나는 것이다.<sup>19)</sup>

18) 두보가 길을 떠나는 乾元 2년(759)은 계속되는 전란의 피해와 기근이 심하여 華州의 司功參軍직을 버리고 秦州로, 同谷으로, 成都로 계속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新唐書·杜甫傳》: 關輔饑, 輒棄官去, 客秦州, 負薪採橡栗自給. 流落劍南, 結廬成都西郭.

19) 施鴻保, 《讀杜詩說》(台北: 河洛圖書出版社印行, 1978), 76쪽: 發秦州云, '無食問樂土, 無

여정의 발단은 떠나야만 하는 이유와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로드무비의 원치 않은 상황에 쫓기어 유랑을 떠나는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S#2. 전개(I): 목피령을 넘다(<木皮嶺><sup>20)</sup>)

여행은 시작되었다. 고생을 가중시키는 것은 추운 겨울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야하는 책임감이다. 同谷에서 남하하면 蜀으로 가는 요로인 木皮嶺을 넘게 된다. 여기에 關을 설치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길이 험하다.<sup>21)</sup>

季冬攜童稚. (전략) 늦겨울에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辛苦赴蜀門. 힘겹고 고단하게 촉문으로 간다.  
南登木皮嶺. 남쪽으로 목피령을 오름에,  
艱險不易論. 어렵고 위험함은 말도 못한다. (중략)

초반부터 시작된 험로는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듯, 첫 대면하는 경치에 압도되어 한참이나 서있다. 풍경이 두보의 시선으로 재구성 된다. 험준한 산을 향해 쏠린 멀리 중첩된 봉우리와 바위들이 제호를 참칭하는 안록산을 향해 분별없이 달려오는 신하의 모습으로 오버랩 된다. 안록산이 군주의 밝은 빛을 가리고, 군현의 땅을 할거하는 가운데,<sup>22)</sup> 어지러운 형국의 다툼이 범과 표범의 싸움 소리로 들려온다. 화면은 다시 현실의 경치로 돌아오고 위아래로 험상궂은 잔도와 드러난 나무뿌리의 모습이 을씨년스럽다.

遠岫爭輔佐. 멀리 봉우리들 다투어 보좌해 오르듯,  
千岩自崩奔. 수많은 바위는 우르르 무너져 달리듯.

衣思南州.' 今按此是泛言, 樂土歲豐, 不憂無食, 南州地暖, 不憂無衣也.

20) 《方輿勝覽》(仇兆鰲, 위의 책, 706쪽): 木皮嶺, 在同谷縣東二十里, 河池縣西十里. 杜甫發同谷, 取路栗亭, 南入郡界, 歷當房邨, 度木皮嶺, 由白水峽入蜀, 卽此.

21) 《方輿勝覽》(仇兆鰲, 위의 책, 706쪽): 黃巢之亂, 王鐸置關於此以遮秦隴, 路極險阻.

22) 黃希·黃鶴, 《補注杜詩》의 謝氏說. (김만원 외, 《杜甫秦州同谷時期詩譯解》,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619쪽 재인용)

始知五嶽外, 비로소 알았다. 오악 이 외에도,  
 別有他山尊. 다른 높은 산 따로 있었구나.  
 仰干塞大明, 쳐다보니 밝은 해를 찢러 가렸고,  
 俯入裂厚坤. 굽어보니 두터운 땅을 박아 찢었도다.  
 再聞虎豹鬪, 범과 표범의 싸움소리 다시 들리고,  
 屢躡風水昏. 물보라 뒤섞여 몸을 자주 음츠린다.  
 高有廢閣道, 높은 곳에 있는 부서진 잔도길,  
 摧折如斷轅. 부러진 수레갈채처럼 꺾여있고,  
 下有冬靑林, 아래에 있는 동청나무 수풀엔,  
 石上走長根. 바위 위로 긴 뿌리 뻗어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라도 한 것일까? 고난의 현실에 아랑곳 않으려는 두보의 내면을 형상화하려는 듯, 문득 아름다운 경치를 목격하게 된다. 전설속의 崑崙山을 생각하며 은거의 꿈을 꾀다.<sup>23)</sup>

西崖特秀發, 서쪽 벼랑은 특출나게 솟아있으니,  
 煥若靈芝繁. 환하여 신령한 지초 무성한 듯,  
 潤聚金碧氣, 윤기있어 금옥의 기운 서린 듯,  
 淸無沙土痕. 깨끗하여 흙모래 흔적조차 없는 듯,  
 憶觀崑崙圖, 곤륜산 그림 본 것이 기억나니,  
 目擊玄圃存. 현포가 실제로 있음을 목격한다.

하지만 또 현실에서 정착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고 슬픔에 잠긴다.

對此欲何適? 여기를 봤는데 어딜 가려고 하나?  
 默傷垂老魂. 다 늙어버린 넋을 가만히 슬퍼한다.

이 슬픔은 암울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목적지에서는 곤륜산을 보리라 하는 희망을 품고 길을 따라 계속 가는 두보를 보여준다.

### S#3. 전개(II): 백사 나루를 건너다(<白沙渡><sup>24)</sup>)

험준한 육로에서 이제 수로가 화면에 펼쳐진다. 白沙渡도 들쭉날쭉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처음 접하는 경치에 두려움보다 신기함으로 감정이 경도된다. 木皮嶺에서 험준했지만 짐짓 아름다운 풍경으로 형상화된 희망이 이곳 여정에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두보 일행이 탄 배는 아스라이 은하수로 올라가 아름다운 경치에 꿈꾸듯 평온한 안식을 느낀다.

畏途隨長江, 두려운 길이 긴 강을 따르니,  
 渡口下絕岸. 나루 입구에서 깎아지른 언덕을 내려간다.  
 差池上舟楫, 들쭉날쭉 거리며 배가 올라가,  
 杳窅入雲漢. 아스라이 은하수로 들어간다. (중략)  
 水淸石礚礚, 물은 맑고 돌은 많이 쌓여 있고,  
 沙白灘漫漫. 모래는 희고 여울은 질펀히 흐름에,  
 迥然洗愁辛, 멀리 시름과 고생스러움 씻어내니,  
 多病一疏散. 많던 병도 한 번에 사라지듯.

그러나 갑자기 맞닥뜨린 험준한 경치에 가슴이 툭 떨어진다. 꿈을 깨어 정신을 차리니 냉엄한 현실이 목전에 있다. 다시 현실을 직시하고 고삐를 꼭 잡는다.

高壁抵嶽峯, 높은 절벽 험준한 곳에 맞닥뜨리고,  
 洪濤越凌亂. 큰 파도는 삼킬 듯 덮치며 어지러워,  
 臨風獨回首, 바람 맞으며 홀로 고개 돌려보고는,  
 攬轡復三嘆. 고삐 꼭 잡고 또 세 번 탄식한다.

이와 같은 '긴장'과 '이완'의 대립 교차되는 짜임<sup>25)</sup>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이야기 구조의 큰 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굴곡이 심한 험난한 여정과 그에 따른 감정의 기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로드무비의 길을 따르는 섬세한 화면구성으로 인해 더 효과적으로 제시된다.

23) 浦起龍, 《讀杜心解》(北京: 中華書局, 1978), 83쪽: 結入妙, 又轉出好景, 使人留戀. 纔動足, 便思住足. 是作者有意留西崖.

24) 浦起龍, 위의 책, 83쪽: 白沙水回二渡, 當卽成州渡嘉陵江處.

25) 浦起龍, 위의 책, 83쪽: 首言畏途, 末言三歎, 中以洗愁辛三字, 挑起兩頭, 饒有別趣.

S#4. 위기 상승: 수회 나루를 건너다(<水會渡><sup>26)</sup>)

白沙渡에서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고 정신을 차리자, 여정의 본격격도에 진입했음을 이어지는 험준한 풍경으로 실감한다. 쉬 없이 이어온 행보는 밤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 행로가 몇 차례나 바뀌는지, 水會渡에서 강나루를 건너는 과정이 숨 가쁘게 그려진다. 달도 저서 앞길을 분간 할 수 없는 캄캄한 밤, 산길로 물길로 언덕으로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다.

山行有常程, 산행에 일정한 이정이 있어,  
 中夜尙未安, 한밤중에도 여전히 쉬지 못한다.  
 微月沒已久, 초승달 진 지 이미 오래고,  
 崖傾路何難! 벼랑 기울어 다니기 어찌나 험한지.  
 大江動我前, 큰 강이 내 앞에서 움직이며,  
 洶若溟渤寬, 용솟음치니 큰 바다처럼 넓은데,  
 篙師暗理楫, 사공은 어둠 속에서 노를 저으며,  
 歌笑輕波瀾, 노래하고 웃고 파도 가벼이 여긴다.  
 霜濃木石滑, 서리 짙게 내려 나무와 돌 미끄럽고,  
 風急手足寒, 바람 세차게 부니 손발이 시리다.  
 入舟已千憂, 배에 탔을 때 이미 천 번 근심하였는데,  
 陟嶺仍萬盤, 산에 올라서도 여전히 만 번을 휘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온갖 고초를 다 겪는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도 태연한 벻사공이 괴리되어 보인다. 그것은 한참 후에야 안 것으로 비바람은 몰아치지 않았는지 별들은 마른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과도한 긴장 탓인지 혼자 갖은 수선을 떼는 것 같다는 생각에 미치자 부끄러움에 자신을 책망하기에 이른다.

廻眺積水外, 고개 돌려 강물 밖을 바라보고서야,  
 始知衆星乾, 비로소 못 별들 말라 있음을 알았다.  
 遠遊令人瘦, 멀리 떠돌아다님에 사람 여위어가니,  
 衰疾漸加餐, 늙고 병들어 밥 많이 먹는 것 부끄럽다.

26) 《一統志》(浦起龍, 위의 책, 84쪽): 嘉陵江過略陽, 會東谷等水, 恐即此處.

여기서 주인공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들고 피폐해져 있는가를 느낄 수 있다. 이 여정은 자책과 자기 비하의 감정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관을 헤쳐 나가는 주인공을 볼 수 있다. 두보는 이러한 난관에도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인가? 여행은 쉬 없이 계속된다.

S#5. 위기 고조(I): 비선각 잔도를 오르다(<飛仙閣><sup>27)</sup>)

정신없이 지나온 水會渡의 위기 국면은 飛仙閣에서 더욱 고조된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축으로 가는 길의 상징인 棧道<sup>28)</sup>에 오르게 된다. 화면에서 가느다란 실같이 보이는 잔도는 아찔하기만 하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잔도를 타야 하는데, 불안감을 달래듯 발밑에 붙은 돌사다리의 견고함이 부각된다.

土門山行窄, 토문부터는 산행길이 좁아져서,  
 微徑緣秋毫, 작은 길은 가을터럭 같이 이어진다.  
 棧雲闌干峻, 잔도는 구름까지 들쭉날쭉 이어져 험준하고,  
 梯石結構牢, 사다리는 돌로 쌓아 구조가 견고하다.

공포감마저 드는 두려움이 잔도에서 내려다본 경물에 투영된다. 드문드문 숲(疏林)의 장막으로 음침하고 검푸르스름하게(積陰, 寒日) 채색된 화면은 두보 내면을 형상화한 듯, 긴 바람의 울부짖음(怒號)은 두보의 흐느낌을 청각화한 듯 그려진다.

萬壑欹疏林, 온 골짜기엔 성긴 숲 기울어 있고,  
 積陰帶奔濤, 짙은 응달엔 거센 물살 들렀는데,  
 寒日外澹泊, 차가운 해는 밖에서 얽게 비치고,  
 長風中怒號, 긴 바람은 안에서 성나 울부짖는다.

27) 《通志》(仇兆鰲, 위의 책, 711쪽): 棧道在褒斜谷中. 飛仙閣, 卽今武曲關, 北棧閣五十三間, 總名連雲棧. 朱注: 飛仙閣, 在今漢中府略陽縣東南四十里.

28) 《梁州圖經》(仇兆鰲, 위의 책, 712쪽): 棧道連空, 極天下之至險, 興利州至三泉縣, 橋閣共一萬九千三百八十間, 護險編欄共四萬七千一百三十四間.

놀란 가슴 도저히 진정되지 않아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지경이다. 땅에 발을 딛고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할 것 같다.

歇鞍在地底, 낮은 지대로 가서 말안장 풀어 쉬니,  
始覺所歷高, 비로소 지나온 곳 높다는 것 알았다.  
往來雜坐臥, 오가는 이 뒤섞여 앉아 있고 누워 있는데,  
人馬同疲勞, 사람과 말 똑같이 지쳐 있다.

멈춤 없이 숨 가쁘게 이어졌던 여정이 여기서 한 숨 돌려진다. 하지만 깊은 땅(地底)에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한 두보<sup>29)</sup>는 쉴 수 없다. 오히려 운명의 속박(定分)이 더 옥죄어 옴을 느낀다. 정처 없는 나그네의 운명을 보게 되자, 가족에게 얼마나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한스럽다.

浮生有定分, 덧없는 인생 정해진 몫 있으니,  
飢飽豈可逃, 배고픔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으랴?  
嘆息謂妻子, 탄식하며 처자식에게 이르노니,  
我何隨汝曹? 내 어찌 너희를 따라가리오?

#### S#6. 위기 하강(I): 오반령 고개를 넘다(<五盤><sup>30)</sup>)

飛仙閣을 지나며 저지대에서 자신의 어두운 운명을 보았지만, 땅에서 안정을 얻은 두보는 평온한 경치를 발견한다. 五盤嶺도 험준한 곳이지만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 것이다. 마음 고요히 대상을 바라본다. 사투를 벌였던 높은 잔도도 두려움의 투영인 생긴 나무도 객관화되어 고요히 화면에 그려진다. 또한 맑은 물에 오히려 물고기가 많고, 새와 야인들

29) 이 부분의 구조에서 《蜀道難》과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쉽 없는 여정에서 단 한 번의 짧은 휴식이 있는데, 둘 다 전체여정의 중간 되는 지점에서 보이며, 배경은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즉 李白은 깊은 산 속이며, 杜甫는 棧道를 벗어난 낮은 지대이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마주한 내면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李白은 험난한 여정에 대한 후회와 걱정으로 내면의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杜甫는 현실인식에서 오는 비참한 운명에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각각 다른 意境을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

30) 《一通志》(仇兆鰲, 위의 책, 713쪽): 七盤嶺, 在保寧府廣元縣北一百七十里, 一名五盤嶺.

이 나무위에 함께 어우러진 낯설고 신기한 모습도 담담히 눈에 들어온다.

五盤雖云險, 오반령이 비록 험하다 하나,  
山色佳有餘, 산색이 넉넉히 아름답다.  
仰凌棧道細, 쳐다보니 높이 걸린 잔도 가늘고,  
俯映江木疏, 굽어보니 강에 비친 나무 성글다.  
地僻無網罟, 땅이 외져 그물질 하는 이 없으니,  
水清反多魚, 물이 맑아도 오히려 물고기 많고,  
好鳥不妄飛, 아름다운 새 함부로 날아가지 않으니,  
野人半巢居, 야인들 반쯤은 나무 위에서 산다.  
喜見淳朴俗, 순박한 풍속을 즐겁게 바라보나니,  
坦然心神舒, 편안하게 마음이 트인다.

그러나 평온한 듯 즐기는 가운데 생경해하며,<sup>31)</sup> 자연에 동화된 야인들과 ‘거리두기’<sup>32)</sup>를 하는 두보의 모습이 붙어져있음을 느낀다. 실제로 경물에 동화되지 못했음이 다음 화면에서 증명된다. 화면은 두보의 생각을 조명한다.

東郊尚格鬪, 낙양에서는 아직도 전쟁 중이니,<sup>33)</sup>  
巨猾何時除? 몹시 교활한 놈 언제 없어지랴?  
故鄉有弟妹, 고향에 있는 아우와 누이는,  
流落隨丘墟, 황폐한 언덕을 따라 유랑하나니,  
成都萬事好, 성도가 만사 좋다 하여도,  
豈若歸吾廬? 어찌 내 집에 돌아감만 하리오?

주인공의 내면에는 나라와 형제에 대한 걱정이 자리해있다. 서두에 복선으로 깔렸던 ‘迫物累(내몰린 세상사의 짐)’의 실체가 중반부에 이르러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자기비하의 감정으로 일관되어 온 원인이

31) ‘水清反多魚’라는 구절의 ‘反’자로서 東方朔 《答客難》의 “水至清則無魚”를 두보가 반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32) 王國維 ‘境界說’에 의하면, 자아와 세계 사이의 ‘인식의 거리’가 최대로 감소하는 지점, 즉 소멸하는 지점에서 無我之境의 경계를 형성한다.

33) 이 무렵 洛陽이 빼앗겨 安慶緒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汎陽에서 반란을 일으켜 즉위한 史思明이 安慶緒를 죽이고 洛陽을 다시 점령하였다.

밝혀졌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고뇌는 나라의 운명에 직결되어 있었다. 하여 두보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여 절망의 순간에는 나그네의 운명을 끌어안고 희망을 보려 하고, 순간의 안식일지라도 현실인식에서 오는 나라 걱정으로 안주하지 못한 것이다.

S#7. 위기 고조(II) : 용문산 잔도를 오르다(<龍門閣><sup>34)</sup>)

운명은 두보를 잠시도 쉬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 같다. 두보의 우국충정의 숭고한 정신에 대해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 더 큰 바람과 위협으로 내몬다. 龍門閣에서 맞는 제2의 위기국면이다. 험준함은 다른 잔도에 비할 바가 못 된다.<sup>35)</sup> 발 디딜 틈도 없는 깎아지른 절벽, 한바탕 몰아친 長風이 화면을 오버랩 시키며 혼미해진 정신을 태고로 옮겨놓는다. 그렇지만 위험천만한 절벽에 잔도를 설치한 사람은 만나볼 수 없다. 격렬한 두통과 현기증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기분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발아래를 내려다보니 천 길 낭떠러지! 여기서 떨어지면 그 다음은 없다. 꼭 살아서 가야만 한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sup>36)</sup>

清江下龍門, 청강이 용문 잔도 아래로 흐르고,  
 絕壁無尺土, 절벽엔 한 뼘의 땅조차 없다.  
 長風駕高浪, 긴 바람이 높은 물결 몰아치니,  
 浩浩自太古, 그 장대함은 태고 적부터이리.  
 危途中縈盤, 위험한 잔도길이 공중에서 휘감기니,  
 仰望垂線縷, 쳐다보면 실이 드리운 듯한데,  
 滑石欹誰鑿, 미끄럽고 경사진 석벽에 누가 뚫었나,  
 浮梁裊相拄, 떠 있는 다리 간당간당 떠받치고 있다.  
 目眩隕雜花, 눈이 어지러워 꽃이 흩어져 떨어지듯,  
 頭風吹過雨, 머리가 아프니 비가 바람에 날리듯.  
 百年不敢料, 백 년 인생 감히 예측하지 못하니,  
 一墜那得取! 일단 떨어지면 구할 길 없어! (후략)

34) 《元和郡縣志》(仇兆鰲, 위의 책, 715쪽): 龍門山, 在利州綿谷縣東北八十二里.

35) 《方輿勝覽》(仇兆鰲, 위의 책, 715쪽): 他閣道雖險, 然山在腰, 亦微有徑, 可以增置閣道. 惟此閣石壁斗立, 虛鑿石竅, 架木其上, 比他處極險.

36) <龍門閣> 후략부: 飽聞經瞿塘, 足見度大庾. 終身歷艱險, 恐懼從此數!

S#8. 위기 하강(II-1) : 석궤각 잔도를 오르다(<石櫃閣><sup>37)</sup>)

아찔했던 순간! 하늘이 시험한 듯 냉엄한 자연 앞에서 격렬한 고통이 한바탕 몰아친 듯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살아서 계속 여행하고 있고, 험준한 잔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 있는 곳은 출렁이는 파도위의 石櫃閣. 모든 것은 그대로이다. 다만 시간은 벌써 겨울을 벗어나려는 듯 해가 길어졌고, 때 이른 꽃들이 눈에 들어온다. 갑자기 완만해진 호흡은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여정을 돌출시킨다. 멈춤 없이 이어온 행보였건만 목적지는 보일 기미도 없이, 시간의 흐름으로만 자신의 이동을 자각할 뿐이다. 이 모든 정경은 마지막의 '먼 길 가는 나그네(遠客)'로 수렴되고,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季冬日已長, 늦겨울 해가 벌써 길어지고,  
 山晚半天赤, 산에 해저물자 하늘 반쪽이 붉다.  
 蜀道多早花, 촉으로 가는 길 일찍 핀 꽃 많고,  
 江間饒奇石, 강 중간에 기이한 바위들도 많다.  
 石櫃曾波上, 석궤각은 출렁이는 물결 위에 있으니,  
 臨虛蕩高壁, 허공에 임하여 높다란 절벽에서 요동친다.  
 淸暉回群鷗, 맑은 빛 속 돌아가는 기러기 떼,  
 暝色帶遠客, 석양 빛 두른 먼 길 가는 나그네.

화면은 계속 나그네를 집중 조명하며 그의 생각을 읽는다. 험난한 여정이 길어지며 점점 지쳐가는 가운데, 구속 없이 자적하고 싶은 뜻은 접어둔 채 떠나야만 하는 자신의 나그네 운명이 산수전원에서 유유자적했던 謝靈運과 陶淵明에 대비되어 자조와 자기비하의 감정으로 되살아난다.

羈棲負幽意, 나그네살이에 숨어살고픈 뜻 저버리고,  
 感嘆向絕跡, 탄식하며 외딴 곳으로 향하는데,  
 信甘孱孺嬰, 진실로 나약하고 아픈 몸 달게 여기리니,  
 不獨東餒迫, 추위와 배고픔에 몰린 때문만은 아니다.

37) 《方輿勝覽》(仇兆鰲, 위의 책, 716쪽): 石欄橋, 在綿谷縣北一里, 自城北至大安軍界管橋, 欄閣共一萬五千三百一十六間, 其著名者爲石櫃閣龍門閣.

優游謝康樂, 여윌롭게 산수를 유람했던 사령운,  
放浪陶彭澤, 전원에서 구속 없이 소요했던 도연명.  
吾衰未自由, 나는 노쇠하여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謝爾性所適, 마음 가는 대로 했던 그대들에 부끄럽다.

한편으로는 현실로부터 내몰린 삶이지만(凍餒迫), 고통을 끌어안고 운명을 애써 받아들이며(甘孱孺嬰) 묵묵히 길을 가고 있는(向絕跡) 두보의 모습이 로 드무비의 주인공과 닮아있다.

#### S#9. 위기 하강(II-2): 길백 나무를 건너다(<桔柏渡><sup>38</sup>)

이미 龍門閣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아찔한 고비를 넘긴 두보는 그 후 石櫃閣과 桔柏渡를 지나면서 줄곧 답답한 심경을 유지한다. 마음의 동요가 없어서인지, 풍경이 눈앞에 한 폭의 풍경화처럼 온전히 들어온다.<sup>39</sup> 두보의 시선이 따라간 경치를 화면은 섬세하게 비추고 있다.

靑冥寒江渡, 검푸르러 차가운 강나루,  
駕竹爲長橋, 대를 엮어 만든 긴 다리,  
竿濕煙漠漠, 장대는 젖었고 안개는 자욱,  
江永風蕭蕭, 강은 유유히고 바람은 싸아아,  
連竿動裊娜, 연이은 대줄 하늘하늘 움직이고,  
征衣颯飄飄, 나그네 옷은 필릭필릭 휘날린다.  
急流鵝鷓散, 급류에 너새와 익조는 흩어지고,  
絕岸鼉鼉驕, 절벽에서 자라와 악어는 뽐낸다.

棧道를 타고 嘉陵江을 따라오다가 桔柏渡에서 강은 동쪽으로 長江으로 흘러가고, 成都로 가기 위해서는 강과 반대 방향의 육로로 가야 한다. 험난했던 여정이었지만 함께 흘러왔기에 여기 서서 지나온 길을 반추하며,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화면은 어린 시절 노닐던 吳越지방으로 페이드 인(Fade-in) 된다.

38) 《方輿勝覽》(仇兆鰲, 위의 책, 718쪽): 桔柏渡, 在利州昭化縣.

39) “上八, 加作長橋行旅圖”(浦起龍, 위의 책, 87쪽) 라 할 만큼 풍광묘사가 수려하다.

西轅自茲異, 서쪽 가는 수레 여기서 갈리니,  
東逝不可要,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 막지 못한다.  
高通荊門路, 높게 형문산의 길로 통하리라,  
闊會滄海潮, 넓게 창해 파도와 만나리라.

화면은 다시 페이드 아웃(Fade-out)되고 날이 저물어 캄캄해지자 나그네 운명이 서러움으로 표출된다.

孤光隱顧盼, 잠깐 돌아본 사이 외로운 빛 숨으니,  
遊子悵寂寥, 나그네 외롭고 쓸쓸함에 서러워라.  
無以洗心胸, 시름 맺힌 마음 씻을 길 없고,  
前登但山椒, 앞으로 오를 길은 산봉우리 뿐.

그러나 그것은 나그네 신세임을 한탄한 것이 아니리라. 다만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흘러왔던 강줄기를 추억하고, 더 소급하여 자신이 어릴 적 유람했던 吳越지방으로 흘러갈 강물을 그리며 회상에 잠긴 사이, 자신의 평온함을 기다려주지 않는 자연의 무심함이 서러울 따름이리라. 그 서러움은 해가 너무 빨리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위로한다. 기어코 자신의 운명을 감싸려는 듯 두보는 서러운 감정을 외부로 던진 것이다. 앞에 놓인 칙칙산중은 두보의 답답한 마음을 더욱더 부각시킨다.

#### S#10. 절정(I): 검문에 이른다(<劍門><sup>40</sup>)

두보의 답답한 심정은 劍門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한다. 천연요새 같이 세워진 검문의 구조에<sup>41</sup> 분노하며, 이 모든 것이 험준하게 지형을 빚은 조물주의

40) 《一統志》(仇兆鰲, 위의 책, 719쪽): 大劍山, 在保寧府劍州北二十五里.

41) 《一統志》(仇兆鰲, 위의 책, 719쪽): 大劍山, 蜀所恃爲外戶. 其山峭壁中斷, 兩崖相嵌, 如門之闢, 如劍之植, 故又名劍門山. 한편, 李白 여정과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 劍閣의 험악한 기세에 李白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長安으로 되돌아와 버렸다. 李白의 여정은 이곳에서 끝났지만, 杜甫는 험준한 劍閣을 넘어 다음 행선지인 鹿頭山에 이르고 마침내 成都에 당도하였다. 劍閣의 험준함은 李白을 長安으로 되돌려 놓았고, 杜甫를 다음 행선지인 鹿頭山까지 150km이상의 거리를 이동할 동안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게 하였으니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탓이라고 일갈한다. 그리하여 조물주와 대적하리라 과격한 발언까지 한다.

惟天有設險. 오직 하느님만이 설치한 험난한 곳,  
 劍門天下壯. 검문이 세상에서 가장 우뚝하다. (중략)  
 兩崖崇墉倚. 두 벼랑은 높은 성벽이 서로 기댄 듯,  
 刻畫城郭狀. 성곽의 형상으로 새겨 놓았으니.  
 一夫怒臨關. 한 사내가 노하여 관문에 임하면,  
 百萬未可傍. 백만 인도 감히 다가갈 수가 없다. (중략)  
 吾將罪真宰. 나는 장차 조물주에게 죄를 물어,  
 意欲鏟疊嶂. 첩첩의 험한 산을 깎아버리고 싶다.

서러운 운명이 자기비하의 감정으로 숨어들었던 것과는 달리, 조금씩 밖으로 표출되어 급기야 劍門에 이르러서는 감정의 폭발이 일어난 듯하다. 운명에 대한 절규였을까? 하지만 갑자기 기세가 꺾이며 나그네 운명을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못하는 두보의 모습이 劍閣을 배경으로 처연하게 화면에 잡힌다.

恐此復偶然. 이런 일 다시 우연히 일어날까 두려워,  
 臨風默惆悵. 바람을 맞으며 말없이 슬퍼한다.

劍門에서의 말없는 절규는 자신의 운명과 함께 하는 시국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통탄의 외침이었다. 결국 두보가 받아들인 자신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에 직결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S#11. 절정(II) : 녹두산 정상에 서다[<鹿頭山>42]

끝날 것 같지 않던 험난한 여정은 鹿頭山에 이르렀다. 녹두산은 劍閣으로부터 劍州, 綿州, 漢州를 지나는 150km 남짓 되는 거리동안 많은 산들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구간의 여정은 없다. 험난하고 오랜 여정에 무척 지쳐있음이 짐작된다. 하지만 당당하게 우뚝 솟아있는 鹿頭山의 위용에 劍門에서 받은 상처를

위안 받는다. 높은 곳에서 다시 앞을 바라본다. 순간 놀라움은 바로 전만 해도 알 수 없었다. 앞에 펼쳐진 것은 확 트인 드넓은 평원. 화면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된 美感은 그동안의 고난을 산뜻하게 갈무리하듯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鹿頭何亭亭? 녹두산은 얼마나 우뚝 솟았는지,  
 是日慰飢渴. 이날 주리고 목말랐던 마음 달랜다.  
 連山西南斷. 연이은 산 서남쪽에서 끊기고,  
 俯見千里豁. 내려다보니 천리가 확 트였다.  
 遊子出京華. 나그네 장안 땅을 나설 때는,  
 劍門不可越. 검문도 넘지 못할 것 같았는데,  
 及茲險阻盡. 여기에 이르자 험준함 다하여,  
 始喜原野闊. 비로소 들관 광활함을 기뻐한다.

하지만 두보는 이 기쁨도 오래갈 수 없음을 직감하고 그 원인을 역사에서 찾는다. 蜀지방에서 융숭히 일어났던 劉備와, 문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揚雄과 司馬相如도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음에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엄습해 온다.

殊方昔三分. 먼 땅 옛날 셋으로 나뉘어,  
 霸氣曾間發. 패자의 기운 한 때 일어났더니.  
 天下今一家. 천하가 지금 하나로 통일되어,  
 雲端失雙闕. 구름 끝의 궁궐 잃어버렸다.  
 悠然想揚馬. 아득히 양웅과 사마상여 생각남에,  
 繼起名碑兀. 연달아 일어나 명성이 우뚝했었지.  
 有文令人傷. 남겨진 문장 사람을 슬프게 하는데,  
 何處理爾骨! 어느 곳에 그대들 뼈 묻혔는지.

이러한 걱정은 현재의 成都尹인 冀國公 裴冕43)에 대한 기대로 전이된다. 전란의 영향이 없는 성도의 환경은 地利보다는 人事로 인한 것임을 갈파한다.

42) 《唐書》(仇兆鰲, 위의 책, 722쪽): 漢州德陽縣有鹿頭關, 關在鹿頭山上, 南距成都百五十里.

43) 《舊唐書·肅宗紀》: 至德二載十二月, 右僕射裴冕封冀國公, 乾元二年六月, 拜成都尹, 充劍南西川節度使.

仗鉞非老臣, (중략) 도끼 쥔 자 충정한 노신하 아니라면,  
 宣風豈專達? 풍교 베풀고 어찌 전담하여 상달하리오?  
 冀公柱石姿, 기국공이 기둥과 주춧돌의 자질 갖추어,  
 論道邦國活, 도를 논하여 나라가 살아났으니,  
 斯人亦何幸, 이 사람들은 또 무슨 행운 가졌기에,  
 公鎮踰歲月, 공이 나라를 지켜 해와 달을 넘겼다.

여기서 두보는 바로 長安과 洛陽의 현실을 떠올렸을까? 두보 내면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우국정신은 그를 안주하지도 절망하지도 못하게 매어둔다.

S#12. 결말: 성도부에 도착하다[<成都府>]

목적지 성도에 입성하자 풍경은 사라지고 나그네 모습이 부각된다. 그동안의 험난했던 여정이 주마등이 되어 지나감을 느낀다.

翳翳桑榆日, 어슴푸레 뽕나무 느릅나무에 걸린 해,  
 照我征衣裳, 내 나그네 옷을 비추는데,  
 我行山川異, 내 여행 중에 산천이 달라지더니,  
 忽在天一方, 어느새 하늘 한쪽 구석에 와 있다.

그렇다면 두보는 로드무비의 주인공이 그렇듯 그토록 찾아 달려온 희망을 본 것일까? 너무 오래 너무 멀리 와 버렸나 보다. 낯선 땅의 이방인이라는 자각이 강하게 지배한다. 화면은 새로운 사람들과 유리된 나그네의 모습을 어색하게 조명하고, 成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錦江을 클로즈업 하여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두보의 나그네 운명을 암시해주는 듯하다.44)

但逢新人民, 오직 만나는 이 새로운 사람들 뿐,  
 未卜見故鄉, 고향을 보리라 점칠 수 없건만,  
 大江東流去, 錦江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44) <新唐書·杜甫傳>: 從還京師, 出爲華州司功參軍. 關輔饑, 輒棄官去, 客秦州, 負薪採橡栗自給. 流落劍南, 結廬成都西郭. ……會嚴武節度劍南東西川, 往依焉. ……武卒, 崔旰等亂, 甫往來梓夔間. 大曆中, 出瞿唐, 下江陵, 泝沅湘以登衡山, 因客耒陽.

遊子日月長. 나그네 세월은 길기만 하다.

자신 앞에 펼쳐진 성도의 풍경은 진정 아름답지만 즐길 수 없다.

曾城填華屋, 높은 성은 화려한 집으로 가득하고,  
 季冬樹木蒼, 늦겨울에도 수목이 푸르다.  
 喧然名都會, 시끌벅적 이름난 도회에,  
 吹簫聞笙簧, 통소 소리 생황 소리에 섞여든다.  
 信美無與適, 진실로 아름답지만 자적할 길 없어,  
 側身望川梁, 몸을 기울여 시내 다리를 바라본다.

내면의 기저를 이루는 현실인식과 나그네 신분의 자각에서 오는 거리감 때문이다. 목적지에 도착했건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에, 자연경물에서 중원의 발호세력들이 서로 빛을 다투는 암울한 나라의 현실과 오버랩 된다.

鳥雀夜各歸, 새들은 밤에 각기 둥지로 돌아가건만,  
 中原杳茫茫, 중원은 아득히 멀기만 하다.  
 初月出不高, 막 떠오른 달 높이 뜨지 않아,  
 衆星尙爭光, 별들이 오히려 빛을 다투는데,  
 自古有羈旅, 예부터 나그네는 있었으니,  
 我何苦哀傷! 내 어찌 아파하고 슬퍼하리오!

마지막 장면은 고뇌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어두운 운명의 자각으로 시작한 여정이 험난한 길을 통하여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모호하게 남아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정체성을 찾아 길을 떠나지만 운명이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버리는 로드무비의 공식을 따르는 것이기에, 주인공 두보도 이제 나그네의 운명이 각인됨으로써 정착하지 못하고 길을 따라 계속 유랑할 것임을 영화는 시사해주고 있다.45)

이상에서 두보의 입촉기행시 12수를 한 편의 로드무비로 재구성하여 감상

45) 위의 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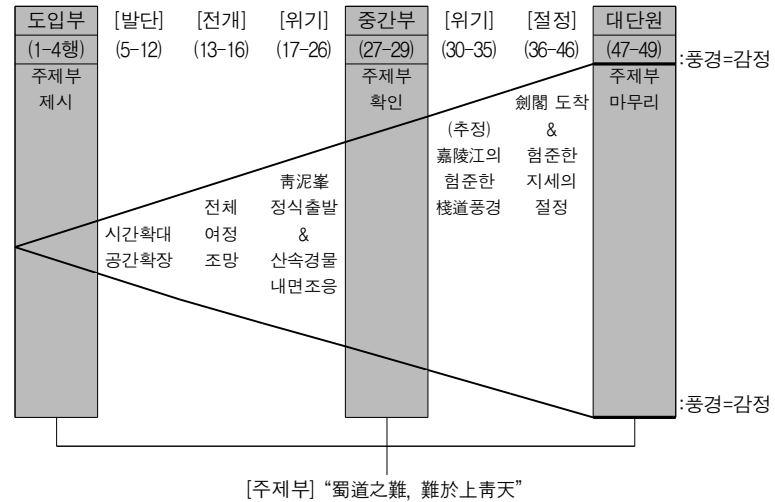
하였다. 풍경 자체의 전개가 큰 틀의 이야기 구조를 따라 펼쳐지는 가운데, 위기가 고조되고 하강하는 몇 차례의 반복이 '긴장'과 '이완'의 팽팽한 구조로 유지됨으로써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이에 따른 주인공의 내면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었는데, 감정이 희망으로든 절망으로든 파고를 일으킬 때 제자리로 끌어당겨 평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두보의 시상 전개는 물결처럼 요동치며 끊임없이 高低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 중심에는 두보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현실인식과 운명의 고뇌라는 두 축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로드무비가 추구하는 영화적 효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영화의 감상을 통해 이면에 담긴 축도로 가는 길의 의미도 짚어볼 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 전란과 기근으로부터 내몰려 낙원의 땅 成都로 찾아가는 여정이 말해주듯, 과거를 뒤로하고 현실에서 벗어나 알 수 없는 미래로 향하는 통로가 되었다. 둘째, 유량의 배경이자 동반자가 되어 아름답거나 혹은 험준한 풍경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현실인식과 운명순응의 큰 축이 두보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셋째, 장안을 나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었던 유량의 삶이 시사하듯, 두보의 나그네 인생을 대변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이들은 즉 로드무비가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에, 이를 통하여 情景의 발전 양상을 설득력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 3. 결론

본고에서 풍경과 내면의 조응방식으로 인한 情景交融의 서로 다른 양상을 각각의 영화 장르를 통하여 감상하였다. 아이맥스와 로드무비의 요소들이 시가 창출한 意境과 잘 호응함으로써 意境의 구체적 양상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본성과 행동의 인과관계로 전개되는 이

이야기 구조가 시의 情景와 대응됨으로써 情景交融의 전개양상에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상에서 살펴본 감상법을 바탕으로 풍경과 감정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상 구조로 전개되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白的 <蜀道難>은 풍경의 흐름과 감정의 흐름이 함께 발전하며 Crescendo 구조로 점차 커지는 이른바 '점층 구조'를 보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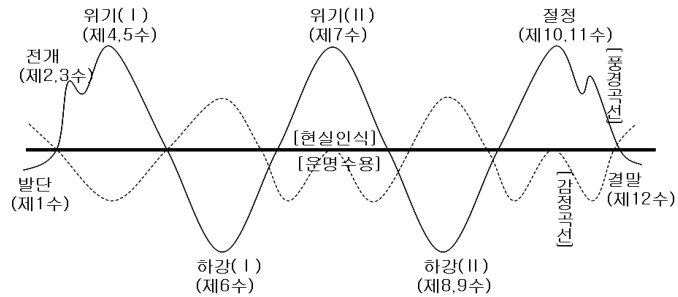


주제부가 도입부, 중간부, 대단원에서 세 차례 반복됨으로써 樂府體로 자칫 산만한 형식을 하나의 詩想으로 압축하는 작용을 한다. 이는 아이맥스 영화의 편광안경에 의해 감상자가 화면의 이미지로만 몰입하게 되는 것처럼, 주제부가 제시한 공포심은 여타의 감정을 배제한 채 시인이 의도한 바대로 전체 시상을 이끄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화면으로의 몰입을 돕는 바깥 틀을 걷어내면, 그 속에 실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부 틀이 있다. 곧 일련의 '여정'으로, 이로 인해 <축도난>의 형식이 이중구조를 띠는 것이다.

그러면 풍경이 그려내는 내부 틀에서 주목할 점은 풍경과 함께 그려지는 감

정의 흐름이다. 감정도 풍경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함을 볼 수 있는데, 위의 그래프에서처럼 진폭이 점층적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풍경도 감정도 고요하게 시작해서 갈수록 험준해지는 풍경을 보여주다가 최악의 지세에 맞닥뜨려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순간 결말을 맺는다. 이로 인해 뒤의 울림은 큰 과장을 남긴다. 이는 거대한 스크린에 상영되는 아이맥스 영화의 웅장한 美感과 일치한다. 또한 入蜀紀行詩 총 12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촉도난>의 길이는 아이맥스 영화가 최대의 시야로 역동적, 입체적, 생동적 이미지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염려하여 일반영화보다 짧은 시간으로 상영하는 조건과도 일맥상통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백의 <촉도난>은 아이맥스 영화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시의 意境이 점층적으로 커지는 양상을 띠며 情景交融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杜甫의 入蜀紀行詩 12수는 풍경과 감정의 흐름이 엇박자로 *Up and Down*의 기복을 이루는 이른바 '변화 구조'를 보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래프는 '풍경'과 '감정'의 구조가 험준함 ↔ 아름다움, 불안함 ↔ 평온함과 같은 대립적 성질이 갈마들며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sup>46)</sup> 풍경이 험준하다가 평온한 정경이 이어지는 변화의 구조이다. 이에 따른 감정의 변화 양상은, 험준한 풍경을 대할 때는 오히려 나그네 운명을 받아들여 평정을 되찾으려 하고(제2, 4, 5수), 아름다운 풍경을 대할 때도 대상에 동화되

46) 제7수와 제10수는 풍경과 감정이 같은 추이를 보이는 예외적인 부분이다.

기는커녕 오히려 감회가 생겨나서 나라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제3, 6, 8, 9, 11, 12수) 대립적인 변화의 구조이다. 즉, 풍경과 감정이 '작용'과 '반작용'을 일으키며 전개된다. 그러한 원인은 대상에 반작용하고 있는 의식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두보 내면의 기저를 이루는 현실인식과 운명수용이라는 두 축으로, 이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高低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이와 같이 풍경에 반작용하며 또는 작용을 가하며 일으킨 내면의 섬세한 변화는 로드무비가 추구하는 장르적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길을 따라 여행하며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로드무비의 공식에 입각하여 두보의 열 두 기행시를 로드무비로 재구성해 봄으로써 길을 따라 유랑하는 주인공 두보의 섬세하고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더욱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情景交融의 변화 양상도 뚜렷이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상에서 로드무비로 감상할 때 12수를 한 편의 플롯으로 '엮어짜기'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시 편들이 전체의 통일성을 위하여 엄밀하게 선택, 배치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부분들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그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자리를 바꾸거나 빼면 전체가 망가질 정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다 각기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sup>47)</sup> 그렇기 때문에 12수가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두보가 여정의 순서대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전체 여정을 구성했음을 시사한다. 그 의도의 반영이 두보 시의 '변화 구조'이며, 그것은 이야기를 가진 로드무비로 재구성될 때 전후 인과관계에 의해 뚜렷이 드러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두 작품의 意境에서 연상되는 각각의 영화 장르를 통하여 고전 작품을 현대적으로 감상하였다. 영화의 각도에서 출발한 이러한 해석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어와 美感를 현대적 감수성으로 받아들여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향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47) 李商變 著, 위의 책, 282쪽.

## &lt; 參考文獻 &gt;

- 李 白 著, 王 琦 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安 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郁賢皓 主編, 《李太白辭典》, 深圳: 廣西教育出版社, 1995.  
 杜 甫 著, 仇兆鰲 注, 《杜詩詳注》, 北京: 中華書局, 1979.  
 施鴻保 著, 《讀杜詩說》, 台北: 河洛圖書出版社印行, 1978.  
 浦起龍 著, 《讀杜心解》, 北京: 中華書局, 1978.  
 王國瓔, 《中國山水詩研究》, 臺北: 聯經出版社, 1996.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遼寧大學出版社, 1993.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隋唐五代十國時期》, 北京: 中國地圖出版社出版, 1996.  
 李商燮 著, 《文學批評用語辭典》, 서울: 民音社, 1981.  
 金學主, 李東鄉, 金榮九 共著, 《中國文學史》, 韓國放送通信大學校, 1995.  
 김만원 외, 《杜甫秦州同谷時期詩譯解》,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이수진, < 감각의 시물레이션: 디지털 3D 애니메이션 베어울프와 관객 >,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08.  
 주진숙, < 세상 밖으로: 로드무비의 새로운 지평 >, 《영화연구》, 한국영화학회, 1995.

## &lt; 中文提要 &gt;

本稿是將李白的《蜀道行》與杜甫的12首入蜀紀行山水詩做爲比較, 試求李白與杜甫的詩境, 在詩作中是何種樣相, 如何具體呈現。在試求此一過程中, 筆者嘗試了將詩作視爲電影影像的新的方法。以此一方法進行的動機是, 筆者認爲, 再偉大的藝術品, 在不同時空的其他文化圈, 當代的人及身處現地的人, 所感受到的藝術感動與誤差一定是有相當差距的。因此筆者試以時下的大眾藝術電影, 來理解李白與杜甫作品意境的具體樣相是如何體現。詩與電影都是映像與音樂爲藍圖, 具有繪畫及音樂的要素。因此把詩看作是電影, 試著真切體會感受到從電影中所傳達出的美感。

筆者發現李白與杜甫的詩作所傳達的美感, 可個別視爲'Eye-max movie'及'Road Movie'所追求的影像效果。因此李白的蜀道難就像是大銀幕中的一篇'Eye-max movie', 雖是遙遠旅程, 但跟著李白的排置與引導, 可在短時間內極具緊迫地感到整首詩展開的景致帶來的生

動感, 立體感與現場感。而杜甫的入蜀紀行詩, 則像是在旅行過程中, 與自身的內心底面自遇的'Road Movie'。雖是經過相同的旅程, 但隨著杜甫纖細的排置與引導, 細看了路途中的景致, 窺探到投影至事物的主人公的感懷及內心苦惱的一面。也因此相對的感到更加停留在此一畫面。筆者以從電影所獲得的美感爲稿底, 試圖理解作品的全體意境。因此, 爲追根究底此意境, 嘗試以電影層面切入詩作的方法是否妥當。

關鍵詞: 李白 杜甫 蜀道難 入蜀紀行詩 意境 情景交融 電影 Eye-max Movie, Road Movi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8.28	2009.9.17	2009.10.1	2009.10.12	2009.10.30